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 北 대응 없었다

F-15K 출격 속 90분간 실시... 軍 즉각 대응태세 계속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이 20일 오후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지만, 우려했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즉각 대응태세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늘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뒤 4시4분께 완전 종료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7면〉

합참은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격훈련은 연평부대가 지난달 23일 K-9 고폭탄 등 11종, 3657발을 사격훈련했다가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으로 중지한 훈련을 연장한 것이다.

연평부대는 이날 K-9 자주포와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등 1500여 발을 연평도 서남방 해상 가로 40km, 세로 20km의 해상사격구역으로 발사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우리나라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KDX-II 4500t급) 2척 등 10여 척을 서해상에 전진 배치했다. 대구기지의 공군 F-15K 전투기도 비상 출격해 서해 상공에서 대기태세를



해병대 연평부대는 20일 오후 2시30분 K-9 자주포 등으로 연평도 서남방에 설정된 훈련구역에 해상사격훈련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8월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사격훈련 모습. /연합뉴스

유지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주한미군의 정보분석팀과 통신요원 등 병력 20여명이 훈련에 투입됐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대표 등 9명도 훈련을 참관했다. 연평도에 투입된 주한미군 병력은 북한군의 동향 감시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훈련에 앞서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소청도 등 서해 5도 전역에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연평도에서는 오전 9시50분께 주민과 취재진 등 280여명이 대

피를 완료했다.

또 인천과 섬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가운데 인천~백령도, 인천~연평도의 2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으며,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이날 우리 기업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격훈련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 부터 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여기에는 누구도 개의할 수 없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북한이 우리를 넘보는 것은, 국론이 분열됐을 때 우리를 넘는다"며 "튼튼한 안보라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안보는 단합된 국민의 힘"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 어번폴리 100곳 만든다

〈Urban Folly: 도시 조형건축물〉

문화수도 조성 14개 신규사업 2012년 실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자리에 조성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1.3km길이의 '민중화 물길'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컬처테라피(Culture Therapy-문화심리치료)' 센터가 조성된다.

또 광산구 철만지구에는 동서양의 의학기술이 집대성된 '아시아 헬스케어센터'가 들어서며, 광주시내 100곳에 어번폴리(Urban Folly-도시 조형건축물)가 만들어진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전당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2012년 연차별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신규사업 14건, 이미 승인된 사업 13건, 계속사업 26건 등 총 53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신규사업에는 문화관광비즈니스 센터조성, 3D입체영상 기술지원센터 구축, 뮤직멀티플렉스 사업 육성, 문화로 행복한 동네 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아시아문화행정교류관 조성,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아시아 빛고을문화관 건립 등 기승인 사업 13건이 심의됐다. 계속사업에는 중외인터랙티브 미디어파크 조성, 사적극제문화타운 조성, 광주국제아트페어개최 등 26건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시

도시 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할 전문적인 총괄 관리조직과 시민아이디어 공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번 심의된 실시계획안을 바탕으로 오는 2011년 3월 30일까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201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연차별실시계획은 2012년에 추진하게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발굴 및 국비 예산확보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광주시 문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 유엔 핵사찰단 복귀 허용”

CNN 보도... 핵연료봉 외국 반출 합의

북한이 유엔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했다고 CNN방송이 20일 보도했다.

CNN은 북한 관리들이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패키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CNN의 울프 블리처 영커는 "북한이 추방했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이 영변 핵 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발, 6자회담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한달 뒤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또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1만2000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판매를

합의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블리처 영커는 전했다.

그는 핵 연료봉을 인수하는 나라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규모의 연료봉은 6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CNN은 전했다. 방송은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분쟁지역 감시를 위한) 군사위원회와 남북간 군사합의인 구축에 대해 고려하는 것에

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번 방북에서 한국의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과 관련, 북한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베이징을 통해 방북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성 부상, 비무장지대 주변 병력을 관장하는 박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외무성과 군부의 주요 인사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합의 도출 무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20일 새벽 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무려 8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

의를 진행했으나, 중국이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는데 반대하면서 접점 찾기가 실패했다.

긴급회의를 요청했던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주요국들 간 비공식 협의는 계속 진

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보리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채택에 동의하는 등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별 의미는 없다는 것이 외교

부의 분석이다.

이달의 순회 안보리 의장인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안보리 내 이견이 매우 심각하다"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협의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스 대사는 "회의에서 다시 이 사안이 북한의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을 강하게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공격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침략행위(unprovoked aggression)'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10 국내·국제 10대 뉴스 ▶ 5면 스포츠 10대 뉴스 ▶ 18면

즐거움 크리스마스!
 12월이 힘입으로 풍성해집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축하선 & 편지
 객실 + 조식(2인) + 미니케이크 증정 ₩100,000
 안성스테이크(2인) + 와인서비스 ₩65,000
 연회장: 결혼식, 동년회, 각종행사, 파티, 생일파티, 각종행사
 방만기간: 2010. 12. 24 ~ 2011. 01. 02 (사전에예약 필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227-8500 |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개년 원시접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연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

시인을 꿈꾸는 제2 피아니스트 이노경 (국어국문학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 (미디어영상학과)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 1(수) ~ 2011. 1. 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